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레어템!

로비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
발행: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lgbtaction.tistory.com
발행일: 2013.6.1

내나라! 우리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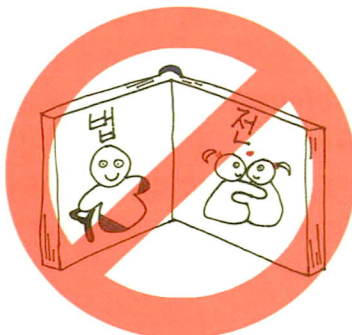
동성결혼

최근 동성 파트너와 결혼발표를 한 김조광수 감독은 국가가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14개국의 나라와 미국의 여러 주에도 동성결혼은 이미 합법이다. 결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2007년, 2010년에 두 번이나 입법 실패한 차별금지법을 2013년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발의했지만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로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한기총을 배후로 한 보수 기독교 원론주의 세력은 성소수자를 '종북 게이'로 몰아 물이며 현대판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를 드러낼 권리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가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마포구 일대에 걸고자 했으나 마포구청은 '성정체성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드러냈다. "내가 바로 동성애자다"라고 쓰여진 종이를 등에 붙이고 구민으로서 당당하게 마포구청 곳곳을 돌아다니는 마레연 회원들에게 구청 직원은 "남의 집에서 뛰는 짓이나?"며 소리를 질렀다.



학생인권조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동성애는 없다고 가르쳐야 할 것이지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것이 아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여러 조항을 뺀 누더기 수정안이 교육청에서 나왔다. 빼도 되는 조항은 없다. 해도 되는 차별은 없다.



우리는 혁명을 원한다

수많은 퀴어들이 가장 먼저 깨고 나와야 할 껍데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이다.

"나는 더럽다", "나는 불효자식이다", "나는 불량품이다", "신 앞의 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혐오이다.

퀴어퍼레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자긍심이다. 성소수자가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유로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과 폭력의 칼날은 스스로 허락하는 이에겐 더 깊숙이 들어온다. 자기혐오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들에 관해 의심하는 것이다. '정상가족'만을 인정하는 가족제도, 섹스와 쾌락을 이야기할 수 없게 하는 성역압, 인간됨마저 포기하게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을 원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기 위하여, 여성 해방운동이 그러했듯, 민주화운동이 그러했듯, 87년 노동자대투쟁이 그러했듯, 우리는 다시한번 이 땅의 약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멈추기 위한 혁명을 원한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개인이 맞춰야 한다는 개소리는 거부한다. 일어나라 성소수자들여. 우리는 더 이상 노골적이고 뻔뻔한 폭력을 감내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혁명을 시작한다.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사라질 때,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자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합헌이라는 결과를 성소수자들에게 안겨줬다. 위헌과 합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헌법재판소 앞은 한국교회가 이겼다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2013년 성폭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군형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과 남인순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차례로 군형법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세 의원은 모두 군형법에 포함된 '계간' 조항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남인순 의원안을 제외하고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도 처벌할 수 있는 추행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는 모순적인 안들이 제출됐다. 남인순 의원은 추행조항 앞에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성적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 하지만 2013년 3월5일 국회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여 계간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인 '항문성교'로 바꾼 군형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군형법 추행죄를 유지하고 동성애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

은 흔히 '성추행'을 떠올리지만, 군형법에는 이미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추행죄는 동성애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이러한 추행죄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을 다시 한 번 개악하려고 한 것이다. 추행죄를 동성 간 간음죄로 개정해 군형법 제92조의6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군형법 개악안이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 성소수자들은 민주통합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하루만에 108개 단체 및 모임, 1,537명의 개인이 연서명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소수자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듯이, 군형법 제92조의6은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동성애 처벌법이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려면 구시대의 유물인 동성애 처벌법부터 사라져야 마땅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혀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 청원에 함께하는 방법

1.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기
퀴어문화축제 (6.1)/ 서울LGBT영화제 (6.6)
2. 우편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아래의 주소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 부담).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3. 팩스/메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동성애자인권연대) / 메일: gunivan@hanmail.net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월 17일(월) 저녁6시까지 보내주세요!
1만인 입법청원서를 6월 19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벽장과 수치심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지난 4월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혐오적 반발에 두 손을 들고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법안이 발의되고도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사실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에 나열된 차별 사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서너 개씩 해당된다. 이윤과 경쟁 논리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성별, 외모, 학벌 등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은 이 법을 남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동성애자', '종북세력', '성범죄자' 등 사람들이 꺼려하고 혐오하는 집단을 들먹이며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이라는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의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우리, 성소수자들을 희생양 삼아 보수적인 성관념을 강화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인 불평등과 빈부격차,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가리려 한다. 오늘날 해도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방송을 비난하며 주요 일간지들(조선, 중앙, 동아, 국민)에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전면 광고가 게재됐다. 그러나 우리는 순순히 천대와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재는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혐오 세력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나 바른 성문화 따위의 수사로 인류가 쌓아온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대한 합의를 깨트릴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더 단호하게 평등과 인권을 요구할 때다. 특정한 인간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한다. 성소수자 혐오가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의 성적 자유를 제약하듯이 말이다.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자.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농치지 말자. 저들은 우리가 문제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를 차별한다면 누구도 평등할 수 없다고 말하자. 지금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 사회의 인권의 척도가 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소수자 인권과 평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 누구든 차별받는다면 아무도 평등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엄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해.

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애인을 소개할 수 없다.

카페에 연인과 손잡고 들어갈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숨어서 뽀뽀해야 한다.

길에서 손잡고 걸어갈 수 없다.

주택청약저축 1순위는 절대 될 수 없다.

불효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평생 떠나지 않는다.

애인이 병원에 입원해도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받는 차별들



이야기하다가 빠치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친구와 동료들과 거리를 두고 나만 아는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지낸다.

배우자 측 가족 경조사에 가족인 나는 휴가를 받지 못한다.

배우자가 아프면 내가 돌봐야 하는데 간병 휴가를 낼 수도 없다.

아웃팅을 당할뻔할 때마다 스스로를 창피해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회의 때 상사가 동성애자를 벌레보다 못하게 말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나오지 않는 가족수당을 매달 확인하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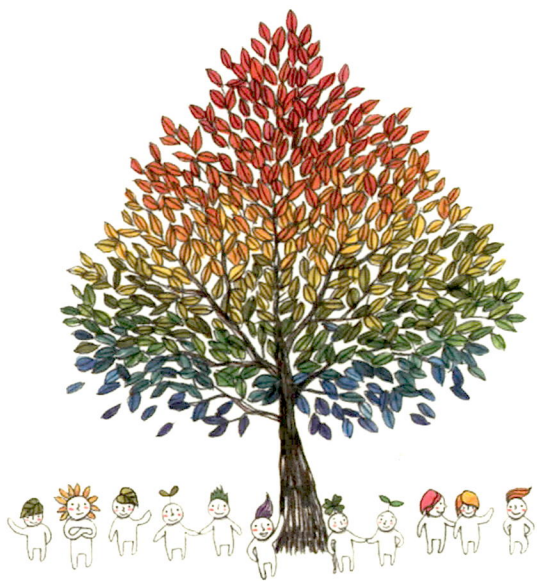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순간의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리지 못한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1. 관심을 갖는다.
2. 주변에 알린다.
3. 행동에 함께한다.
4. 후원한다.

주요일정

_6월 7일 7시 홍대입구역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거리 캠페인
_6월 14일 7시30분 인권중심사람 다목적홀
성소수자가 알아야 할 막강 FAQ 토론회
_6월 15일 12시 상암월드컵공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하루종일 캠페인



이런 모든 일들을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함께해요.

지금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스에서 회원/후원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인련 홈페이지 lgbtpride.or.kr 트위터 @lgbtaction

페이스북 lgbtaction 전화번호 070-7592-9984

이메일 lgbtpride@empa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정민석(동인련)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 입니다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L레즈비언 - G게이 - B바이섹슈얼 - T트랜스젠더

